

대학로에 공연예술센터 개관 서경대, 현장교육 리더 '우뚛'

‘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
취업·창업 플랫폼으로 육성
연 12회이상 공연 진행 계획

서경대학교가 공연예술의 메카인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하고 ‘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로 만들기로 했다. 정릉 캠퍼스와 연계해 예술분야 인재양성과 해당 분야 취업·창업 플랫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경대에 따르면, 서경대 공연예술센터는 지난 15일 서경대 김성민 법인 이사장과 최영철 총장, 보직 교수,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서경대 공연예술센터는 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로 대지 1322제곱미터(400평), 건물 6280제곱미터(1900평)의 지하 5층, 지상 5층 총 10개 층 규모다. 500여석의 첨단 공연장을 비롯해 스튜디오, 중극장, 소극장, 영상실습실, 무용실, 합주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갖췄다. 연극이나 뮤지컬,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뷰티서비스 등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예술공연 공간이다. 1층에는 버거킹과 커피미스트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대학 측은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을 계기로 정릉 캠퍼스 예술대학과 미용예술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연계해 예술분야 인재 양성과 공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식 /서경대학교

급, 산학협력이나 취업·창업의 새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경대는 이날 공식 개관에 앞서 서경대 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와 실용음악학과 1회 졸업 공연을 여는 등 반년 가까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에서는 앞으로 1년에 12개 이상의 뮤지컬,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을 쉬지 않고 진행할 예정이다. 무대장치제작소도 별도로 건립해 디자인, 제작, 작화, 시연 등을 하는 레파토리 제작극단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또 서경대 뮤지컬학과와 정기 공연과 서경대 뮤지컬학과 출신들로 구성된 극단 ‘STUD

IO 134’의 공연이 상시로 이뤄지고 뷰티숍을 열어 서경대 출신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테라피스트들의 뷰티숍 브랜드도 확장할 예정이다.

최영철 서경대 총장은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개관으로 정릉 캠퍼스, 남양주 연수원과 함께 21세기를 리드하는 현장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공연예술인 양성과 공연예술의 대중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경대는 예술대학 소속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부, 영화영상학과,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무용예술학과, 뮤지컬학과 등 7개 학과(부)와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등 미용예술대학 소속 2개 학과가 있다. 이들 예술분야 9개 학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실무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HUB)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특화된 명품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사회가 인정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서경대 관계자는 “서경대 예술대학이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K팝, K뷰티 등 한류예술 열풍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며 “실용음악, 모델, 연기, 뮤지컬, 공연예술, 영화영상 등 이른바 ‘스타학과’가 많고 현장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과 훌륭한 교수진, 우수한 교육 시설 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동국대에서 개최됐다. /동국대학교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에 박은경 교수

동국대는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지난 13일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대 회장으로 동아대 박은경 교수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임 2·3대 회장은 동국대 김영민 교수가 역임했다. 새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정기총회에는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비롯해, 경희대, 단국대, 세종대, 한양대, 숭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 전국

48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문대학 현안 전반에 대한 토론을 통해 ‘향후 인문학의 방향’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향후 인문학 발전과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전임 회장들과 역대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인문대학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문학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대정부·산업계 교섭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한용수 기자

‘3D 프린팅’으로 맹학교에 재능 기부

삼육대 생명과학과 4학년 임진환 씨

삼육대학교 학생이 졸업을 맞은 맹학교 학생들에게 3D 프린터로 흉상을 제작해주는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삼육대 생명과학과 4학년인 임진환 씨. 3D 프린팅 스타트업에서 설계사로 일하기도 하는 임 씨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맹인학생들에게 3D 프린터로 졸업앨범을 만들어주는 영상을 보게 됐다. 2014년 한 3D 프린팅 업체가 진행한 사업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졸업앨범 속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임 씨는 자신의 기술과 회사 장비를 활용해 재능기부 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프로젝트 기획안을 이 회사에 제안하자 회사 대표도 흔쾌히 받았다. 임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 맹학교에 제안서를 보냈고 한빛맹학교가 사업 취지에 공감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2학년 때 자동차공학(카메라트로닉스 학과)을 복수전공한 임 씨는 지난해 학내 창업지원단이 제공하는 3D 프린팅 교육



삼육대 생명과학과 임진환 씨 /삼육대학교

을 받아 해당 기술을 익혔다. 임 씨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활용하게 됐다”며 “스캔본 편집을 할 때는 인체해부학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고, 설계 단계에서는 복수전공을 하며 익힌 공학적 사고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수나 의족, 인공장기를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장애인이 인체 한계를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제품을 설계하고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 꿈이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초등 방과후 영어 무산... 사교육시장 '들쭉'

초1~2 방과후 수업서 영어 제외
법안 국회서 표류... 학부모 '혼란'

초등학교 개학을 2주 앞둔 가운데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방과후 영어를 올해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사교육 초등 영어 시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각 초등학교 1학기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되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선행학습금

지법에 담겨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돼 지난해 3월 시행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도 추진했으나 학부모 반발로 결정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전격 허용키로 하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휩싸였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2월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제외한 올해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대부분 강사를 채용해 이뤄지는데, 영어 수업을 위한 강사 채용에만 3~4주가 걸리고 수업 프로그램 구성과 준비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설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 신청에 나서고 있다.

방과 후 영어 수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초등 영어 학원의 비용은 저렴한 곳이 월 10만원 안팎이고, 20~30만원대도 많다. /한용수 기자

서울사이버대, 학·석사 1671명 배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소재 본교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만 72세의 최고령 김가연, 박희봉 씨가 노인복지학과 학위를 받았고, 만 19세 최연소 임영서 씨가

경영학과 학위를 받는 등 총 1671명이 학사(1634명)와 석사(37명)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는 이로써 2000년 개교 이래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학부 총 3만 3395명, 대학원 총 656명을 배출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졸업생들에게 아섹 포토 이벤트를 매년 개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신학기 대비... 8.5만개 교육시설 안전점검

교육부 4월19일까지 안전대진단

교육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전체 교육기관 시설물 8만5000여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와 옹벽, 대학실험실 등이다.

특히 신학기를 대비해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을 자체점검,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한 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의 점검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D·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등에 대

해서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고,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중 민관합동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기관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자의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교육부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표본을 정해 점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이 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안전대진단이 시작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